

2018년 7월 12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원자재 및 산업재 하락 주도 국제유가 5.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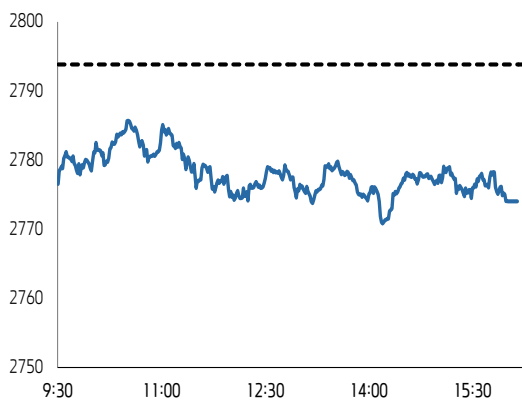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유럽증시는 글렌코어(-4.83%) 등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재차 부각되자 하락 출발. 더불어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등 상품시장 변동성 확대도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주가 하락폭이 제한되고, 일부 기술주 또한 반등에 성공하자 하락폭이 확대되지는 않음. 더불어 미 상원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법률 수정에 나섰다는 소식 또한 하락폭 확대 제한 요인(다우 -0.88%, 나스닥 -0.55%, S&P500 -0.71%, 러셀 2000 -0.71%)

미 증시는 ①무역분쟁 ②국제유가 급락 ③실적시즌 기대 등의 영향을 받음. 먼저 무역분쟁 관련 소식.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 중국 수입 제품 목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 하는 등 무역분쟁 우려감이 재차 부각. 한편 상원은 국가 안보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해 의회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88:11로 통과 되었다고 발표. 이번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 다만, 이번 법안을 주도했던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동맹국에 관세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관련 관세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입법안을 계속 추진 할 것이다" 라고 발표.

한편, 국제유가가 5% 급락하며 투자심리에 영향. 국제유가는 OPEC 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가 6월에 전월 대비 하루 45.9만 배럴 증가한 1,049만 배럴 생산을 했다고 발표하자 매물 출회.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제재 관련 일부 면제 가능성을 언급 한 점과 리비아 원유 수출 재개도 영향. 반면, 이러한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의 낙폭이 확대 되지 않은 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주와 일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자 관련된 업종에 대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 또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지수   | 지수동락률(%) | Close     | D-1   |
|---------|----------|-----------|-------|------|----------|-----------|-------|
| KOSPI   |          | 2,280.62  | -0.59 | 홍콩항셱 |          | 28,311.69 | -1.29 |
| KOSDAQ  |          | 804.78    | -1.03 | 영국   |          | 7,591.96  | -1.30 |
| DOW     |          | 24,700.45 | -0.88 | 독일   |          | 12,417.13 | -1.53 |
| NASDAQ  |          | 7,716.61  | -0.55 | 프랑스  |          | 5,353.93  | -1.48 |
| S&P 500 |          | 2,774.02  | -0.71 | 스페인  |          | 9,733.60  | -1.57 |
| 상하이종합   |          | 2,777.77  | -1.76 | 그리스  |          | 746.70    | -1.14 |
| 일본      |          | 21,932.21 | -1.19 | 이탈리아 |          | 21,708.06 | -1.58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산업재, 반도체, 에너지 업종 하락

보잉(-1.89%) 캐터필라(-3.18%) 등 산업재와 GM(-1.97%), 포드(-1.60%) 등 자동차 업종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하락 했다. 애플(-1.30%)도 무역분쟁 격화로 중국 판매 부담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큐로브(-3.64%), 스카이웍(-3.04%), 브로드컴(-2.84%)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하락 했다. 마이크론(-2.80%) AMAT(-3.29%), 램리서치(-4.05%) 등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업종도 무역분쟁 우려로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9% 하락했다.

엑손모빌(-1.28%), 셰브론(-3.19%), 코노코필립스(-2.36%)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프리포트-맥모란(-3.87%), 뉴몬트마이닝(-2.22%) 등 광산 업체들도 비철금속 급락 여파로 하락 했다. 반면 JP모건(-0.22%), BOA(-0.52%), 씨티그룹(-0.47%) 등 금융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낙폭이 제한되었다. 알파벳(+0.37%), 아마존(+0.68%), 넷플릭스(+0.73%)도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넥스테라 에너지(+0.58%), 듀크에너지(+0.69%) 등 유틸리티 업종은 상승 했다.

####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 -2.63% | 대형 가치주 ETF     | -0.84% |
| 에너지섹터 ETF    | -2.73% | 중형 가치주 ETF     | -0.84% |
| 소매업체 ETF     | -0.93% | 소형 가치주 ETF     | -0.86% |
| 금융섹터 ETF     | -0.48% | 배당주 ETF        | -0.68% |
| 기술섹터 ETF     | -0.39% | 변동성 ETF        | +3.42% |
| 소셜 미디어업체 ETF | -0.66% | 대형 성장주 ETF     | -0.48% |
| 인터넷업체 ETF    | +0.34% | 중형 성장주 ETF     | -0.51% |
| 리츠업체 ETF     | -0.30% | 소형 성장주 ETF     | -0.61% |
| 주택건설업체 ETF   | -0.86% | 신흥국 고배당 ETF    | -2.10% |
| 바이오섹터 ETF    | -0.29% | 신흥국 저변동성 ETF   | -1.06% |
| 헬스케어 ETF     | -0.79% | 하이일드 ETF       | -0.08% |
| 곡물 ETF       | -1.93% | 물가연동채 ETF      | +0.11% |
| 반도체 ETF      | -2.75% | Long/short ETF | -0.05%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559.84   | -2.15% | +0.54% | -0.52% |
| 소재      | 366.27   | -1.69% | +1.52% | -3.76% |
| 산업재     | 609.47   | -1.62% | +1.41% | -4.94% |
| 경기소비재   | 888.23   | -0.23% | +2.51% | +0.83% |
| 필수소비재   | 538.92   | -0.34% | +2.21% | +2.64% |
| 헬스케어    | 998.35   | -0.79% | +2.78% | +1.56% |
| 금융      | 448.87   | -0.52% | +2.16% | -2.91% |
| IT      | 1,253.51 | -0.51% | +3.27% | -0.78% |
| 통신      | 149.29   | -1.05% | -0.60% | -1.00% |
| 유틸리티    | 266.12   | +0.87% | +0.02% | +7.61% |
| 부동산     | 203.87   | -0.33% | +1.00% | +2.83%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극단적 비관론 지양

MSCI 한국 지수는 2.03% MSCI 신흥 지수도 1.9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182 계약)에도 불구하고 0.35pt 상승한 295.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7.6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5% 하락하는 등 상품시장의 하락폭이 컸다. 이로 인해 미 증시는 에너지, 산업재, 반도체 업종이 하락을 주도 했다. 반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금융주는 낙폭이 제한되거나 상승 했다. 더불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대형 기술주 또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었던 내용이었으며, 전일 이미 한국 증시에는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확대되자 미 의회가 이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미 증시의 특징처럼 무역분쟁 보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한편, KOSPI 12개월 trailing PBR 1 배는 2011년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이다. 현재로 환산하면 KOSPI 2,230pt 다.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금융지표 등이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처럼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가 조정이 이어진다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물가지표 상승

6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4%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월(yoy +3.1%) 발표된 수치나 시장 전망치(yoy +3.2%)를 상회한 결과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2.8%로 전월(yoy +2.4%) 이나 시장 전망치(yoy +2.6%)를 상회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 유가 5% 급락

국제유가는 OPEC 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월보다 하루 45.9 만 배럴 증가한 1,049 만 배럴 생산을 했다고 발표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전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제재 관련 일부 면제 가능성을 언급 한 점도 영향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가 원유 수출 불이행 선언을 철회하고 수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EIA 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1,263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 했으나 잠시 하락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쳤다.

달러지수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상승폭이 컸다는 발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강세요인 중 하나였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상승 하도록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인내하고 신중해야 한다” 라고 주장 했다. 한편, 엔화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졌으나 달러 대비 1% 가까이 약세를 보였다.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 특히 터키 리라화는 BOA 가 약세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3% 넘게 약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도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장기 금리는 하락 했으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로 발표되자 단기물은 상승하는 등 혼조양상을 보였다. 한편, 10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인 2.46 배보다 상승한 2.57 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한 점도 하락 압력을 줬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는 무역분쟁 우려감과 달러 강세로 여타 비철금속과 동반 급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1%, 철근도 1.91% 상승 했다.

| 주요 상품 | 증가       | D-1(%) | D-5(%) | 주요 통화         | 증가      | D-1(%) | D-5(%) |
|-------|----------|--------|--------|---------------|---------|--------|--------|
| WTI   | 70.38    | -5.03  | -5.07  | Dollar Index  | 94.729  | +0.61  | +0.21  |
| 브렌트유  | 73.40    | -6.92  | -6.19  | EUR/USD       | 1.1676  | -0.58  | +0.16  |
| 금     | 1,244.40 | -0.88  | -0.73  | USD/JPY       | 112.02  | +0.92  | +1.38  |
| 은     | 15,817   | -1.68  | -1.41  | GBP/USD       | 1.3206  | -0.53  | -0.18  |
| 알루미늄  | 2,060.00 | -1.44  | -1.39  | USD/CHF       | 0.9959  | +0.40  | +0.29  |
| 전기동   | 6,145.00 | -2.96  | -3.77  | AUD/USD       | 0.7368  | -1.22  | -0.24  |
| 아연    | 2,563.00 | -2.55  | -5.07  | USD/CAD       | 1.3209  | +0.73  | +0.50  |
| 옥수수   | 353.25   | -2.08  | -3.02  | USD/BRL       | 3.8764  | +1.63  | -0.95  |
| 밀     | 471.75   | -4.12  | -3.92  | USD/CNH       | 6.7242  | +1.11  | +1.22  |
| 대두    | 848.25   | -2.67  | -1.85  | USD/KRW       | 1120.00 | +0.36  | +0.49  |
| 커피    | 112.05   | -2.40  | +0.13  | USD/KRW NDF1M | 1127.68 | +1.28  | +1.09  |

| 10 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 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2.835 | -1.46   | +0.36   | 스페인      | 1.300 | +2.50   | +0.40   |
| 한국       | 2.507 | -4.30   | -4.20   | 포르투갈     | 1.764 | +1.60   | +1.90   |
| 일본       | 0.043 | -0.20   | +1.40   | 그리스      | 3.853 | +3.10   | -8.70   |
| 독일       | 0.367 | +4.70   | +6.20   | 이탈리아     | 2.686 | +1.90   | +3.50   |